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목소리

경향잡지

2006. 5 No. 1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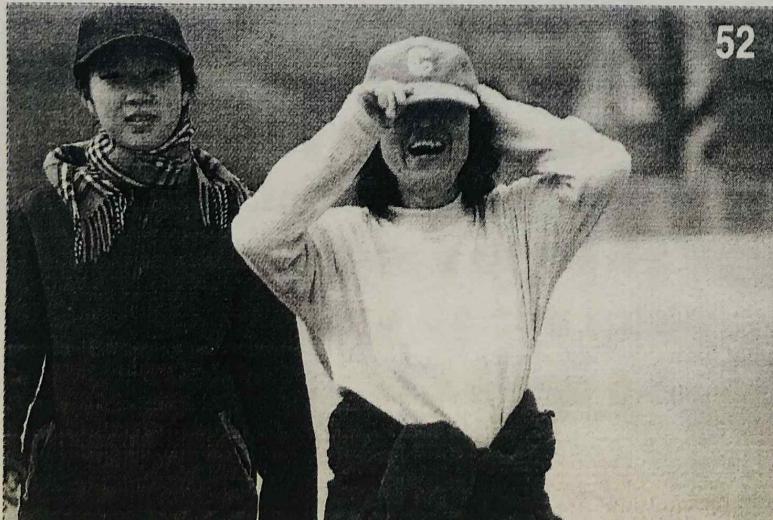
관련 기사 38쪽

삶의 자리에서

- 6 이지누와 함께 걷는 길 잃어버린 스승
80 그리운 평신도 · 최종덕
생활 사상가 장일순 요한
92 정호승의 속삭임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합니다
96 허병섭의 생명세상 이야기
평화와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100 수학이 하느님을 노래할 때 · 명백호
숫자 5, 생명의 수
104 예수님의 심리학 · 홍성남
더 좋은 유혹을 찾으세요
114 아름다운 사람 · 권은정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총, 윤님파

문화 산책

- 1 100년 사진관
2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 김상구
57 내가 만든 성물 묵주 주머니 · 김은미
79 웃고 또 웃고 성당의 박쥐, 혼란의 주인공
122 책 속 미술관 · 권용준
반 고흐의 '피에타' (들라크루아의 '피에타' 모작)
127 영화 이야기 잊혀진 장난감 · 김혜원
130 자연을 담은 소박한 밥상 김치 쌈밥
132 사서함 16호
134 경향사랑방 어머니, 우리 어머니! · 이시옹
성모송 · 이소화
138 경향잡지를 기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40 낱말 맞히기, 다른 그림 찾기



52



6

생명사상의 큰 스승 ‘조 한 알’

글 최종덕

첨단기술과 고도문명이 지배하는 오늘날 이에 따른 심각한 환경위기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이며,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환경위기는 남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런 마음이 곧장 물질만능의 개발논리로 이어지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더 무서운 환경위기는 물질오염이 아닌 의식의 오염입니다. 이런 정신의 오염을 씻어내는 것이 곧 환경위기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이를 바로 생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 생명사상의 큰 스승이 우리 곁에 계셨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친 채 곁돌고 있었습니다. 그 스승이 바로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이십니다.

가공된 삶을 살지 마라

김지하 시인의 스승이신 장일순 선생님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분의 아호가 ‘조 한 알’ 이듯이, 아주 작은 좁쌀처럼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고 모시는 마음과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꾸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다른 아호는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무위에서 따온 ‘무위당(無爲堂)’ 인데,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말고,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억지춘향의 가공된 삶을 살지 마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1950년대 이십대 나이로 중립화 평화통일운동과 대성학원을 설립하

는 교육운동을 시작으로, 1970년대는 협동조합운동을 통하여 농민들의 두레교육을 하시면서 오늘의 한살림운동으로 이어주십니다.

또한 1980년대 들어 민초와 호흡을 같이하는 생활 속의 수묵화를 치시면서 독특한 문인화의 작품 세계를 형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수묵화 정신은 당신의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난을 치되 반드시 난이 아니라 이 땅의 산야에 널
려있는 잡초에서부터 삼라만상이 다 난으로 되게 해서, 시나브로 난이 사람의 얼
굴로 되다가 이윽고는 성자의 얼굴이 되게끔 쳐보는 게 내 꿈일세”(83쪽 그림).

풀 하나, 벌레 하나, 돌 하나를 내 생명처럼 모시라는 당신의 뜻이 바로 생명사
상의 바탕이며, 어렵게만 느껴지는 생명이론이 아니라 바로 이웃 사람들을 내 부
모처럼 모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작품에는 ‘중생시친(衆生是親)’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거지거나 심술쟁이 고집쟁이까지도 내 중생입니다. 그러나 사람
만이 중생은 아닙니다. 밭에 잡초나 논의 피, 봉천내의 자갈까지도 중생인 것입니
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을 내 부모 모시듯 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읽어내는 안목을 배우다

장일순 선생님은 1928년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에서 태어나 1994년 67세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1940년 원동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1944년 경성공
업전문학교(현 서울 공대)에 입학하였으나, 해방 후 미군 대령을 총장으로 한 미군
중심의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안에 대한 반대투쟁의 주요 참여자로 지목되어 제적
되었습니다. 1946년 서울대학교 미학과에 다시 입학하였으나, 6·25전쟁으로 군
에 입대하여 통역관으로 활동하던 중 제대하여 원주로 돌아오신 뒤 줄곧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장일순 요한 선생(1928~1994년).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여운 장경호와 차강 박기정 선생한테서 글씨와 그림을 배우는데, 이는 다만 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현실 그리고 역사를 올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배웁니다. “먹은 새[鳥] 힘으로 갈고 봇은 황소 힘으로 쥐라.” 던 차강 선생은, 의암 유인석 장군 밑에서 의병투쟁을 하시다가 시골로 내려가 수묵화로 세월의 의미를 다지면서, 남몰래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보내던 우국지사였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장일순 선생님의 배움의 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일순 선생님의 중립화 평화통일론 주장은 결국 5·16 군사반란 때 구금된 이유가 되었고, 서대문형무소와 춘천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출옥 이후 정치운동보다는 지역의 자치와 협동운동에 힘을 쏟으시는데, 1960년대 중반 이후 원주교구 초대 교구장이신 지학순 주교님을 만나 낙후된 지역의 교육사업과 당시 강원도를 휩쓴 홍수재해 대책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농민과 광산 노동자들의 생활의식 교육을 하십니다. 지학순 주교님은 평신도 장일순 선생님의 실천적 용기와 사랑의 정신을 일찍 간파하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람답게

1960년 봄, 캐나다에서 오신 메리 가브리엘 수녀님이 부산에서 33명의 조합원과 함께 3,400환을 모아 성가신협을 시작한 뒤 전국에 50개 조합을 설립한 상태였는데, 무위당 선생님은 이런 서구의 협동운동 정신에 우리 전통문화인 두레, 계, 품앗이 등 다양한 협동정신을 합쳐서 새로운 자치운동을 전개하십니다. 그래서 돈이 중심이 되는 물질만능의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람답게 사는 협동과 자치의 삶의 운동을 펼치며, 지학순 주교님의 이해와 지원으로 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하여 고리대금에 허덕이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땀 흘려 노력하는 민중이 대접 받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하셨습니다.

이런 실천운동 이면에는 반드시 나 자신의 일깨움이 먼저라고 강조하십니다. 남

妙悟
天言則
無證
道在
無學
事



에게 뽑내고 드러나게 무언가를 이
루려는 내가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남
을 모시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일깨
워 찾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기신 어느 글귀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고향에 가지 못하리.”

이렇게 모심과 섬김의 정신이 바로 민중과 자연을 사랑하는 실천의 원동력인 것
입니다.

“天地萬物莫非侍天主也”(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치고 하느님을 그 안에 모시
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자신을 낮추는 마음과 현실을 접근하는 행동운동이 결합된 무위당 선생님의 사
상을 김지하 시인이 한마디로 표현한 ‘도덕정치’와 생명사상은, 그 말이 어려운 듯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연과 사람 모두를 사랑하고 그 속에 숨어있
는 하늘의 모습을 존중하며 그 사랑과 존중이 민중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하고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은 책에서 20분쯤 걸리는 시
내에 마을 가실 때면 걸어가시면서 시장통 좌판 할머니, 리어카 장사 아저씨, 바구
니 장사 아주머니, 하다못해 지나가는 나그네에, 경찰 아저씨와 소소한 생활 이야
기를 나누십니다. “아버지 잘 계시냐?”, “조카 결혼생활은 잘하느냐?”, “요즘 사는
게 어떠냐?” 따위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인간의 깊은 도리를 스
스로 찾아가게 하시는 정말 탁월한 생활사상가이셨습니다. 생명사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이거늘,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

최종덕 원주 상지대학교 교양과 철학교실 교수이며 ‘무위당을 기리는 모임’ 실행위원이다. 아파트에 살면서 부부가 함께 맷돌을 돌려 두부를 만들고, 메주를 뜨며 짚으로 생활용품을 만들고 재봉틀을 돌려 가방을 만드는 이야기를 「최
씨 부부의 어처구니 있는 아파트 살이」라는 책으로 묶어 냈다.

* ‘무위당을 기리는 모임’ 홈페이지(www.jangilsoon.co.kr)에 가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장일순 선생
님이 쓰신 「나락 한 알 속의 우주」와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좁쌀 하나」 같
은 책이 있다.